보수 성향 교수 시국선언 조선대 교수들 명의 도용

명단 포함 30명 중 17명 도용·10명은 타대학…동의 3명 뿐

법적대응 검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진보세력의 움직임을 비판한 보수성향 교수들의 시국선언 지지 명단에 포함된 조선대 교수들 다수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수성향의 선진화교수연합(이하 교수연합)은 지난 12일 '나라를 사랑하는 교수 모임'이라는 이름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진보적 지식인집단은 민주주의 위기론을 말하면서 오히려 국민 화합을 해치고 사회분열과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교수들의 잇단 시국선언을 비판했다.

이날 발표된 시국선언은 교수연합 소속 30명의 교수와 이를 지지하는 전국 대학 97명 교수들의 명의로 작성됐다. 특히 지지교수 97명 중 30명의 교수가 조선대 소속이었다.

그러나 교수 명단 발표 직후 조선대 교수들은 "명의가 도용됐다"며 반발했다.

더욱이 조선대 소속으로 발표된 30명의 교수 중 10명은 호남대 전·현직 교수들인 것으로 밝혀지는 등 시국선언 자체에 대한 신뢰도 문제 마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호남대 교수(10명)를 제외한 20명 조선대 교수들 가운데에서도 3명만이 시국선언에 동의했으며, 나머지 17명은 지난 13~18일 조선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수연합 시국선언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9일 광주·전남대학 교수 명의로 국정쇄신 시국선언에 동참했던 2명의 교수 이름도 교수연합 시국선언에 포함돼있다. 이들은 교수연합의 시국선언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선대 A교수는 "교수연합의 시국선언에 대해 서명도 동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떳떳하다. 하지만 교수단체가 시국선언에 동의하지도 않은 사람의 이름을 포함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명예훼손 여부 등을 따져 다른 교수들과 대응 방안을 찾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수는 "가만히 앉아서 명의를 도용당했을 뿐만 아니라 교수연합의 시국선언 지지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누구나 타인의 명예를 존중해야 하는 만큼 교수연합 측에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문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수연합 시국선언 명단에 오른 교수들은 개인 또는 단체로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 이에 대해 교수연합측은 "조선대 교수 명단을 호남경제문화포럼으로부터 넘겨 받아 게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엄마와 떡메를 모녀 결연을 맺은 전남지역 다문화가정 주부들과 한국 어머니들이 24일 곡성군 고달면 가정리 팜스테이 마을에서 떡메를 치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들은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가 주관한 '엄마와 행복한 나들이' 행사에 참여, 자전거 하이킹·명랑운동회 등을 통해 돈독한 정을 나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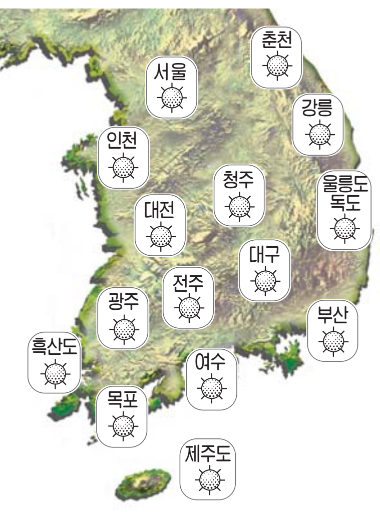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19분 / 해짐 19시 51분 / 달뜸 07시 48분 / 달짐 22시 02분

등줄기로 땀 주르륵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으며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다.

광 주	맑 음	20/33℃
목 포	맑 음	19/30℃
여 수	맑 음	22/29℃
완 도	맑 음	18/31℃
구 례	맑 음	18/34℃
해 남	맑 음	18/32℃
장 흥	맑 음	18/33℃
고 흥	맑 음	18/32℃
순 천	맑 음	19/32℃
영 광	맑 음	18/31℃
진 도	맑 음	19/31℃
전 주	맑 음	19/33℃
남 원	맑 음	16/33℃
흑산도	맑 음	19/27℃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남서	0.5~1.0m
먼바다	남서~남서	1.0~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먼바다	남~남	0.5~1.5m

	밀물	썰물
목포	04:05 16:05	09:66 21:17
여수	10:49 23:27	04:47 16:5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6(금)	27(토)	28(일)	29(월)	30(화)	7/1(수)
최저/최고	21/33	21/31	23/30	22/28	22/28	22/30

우치동물원서 태어난 새끼 사자 공개

김연아 이름 따 '대연' '소연'

광주 우치동물원에서 태어난 사자 새끼 두 마리가 일반에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우치동물원에 따르면 지난 3월 3일 아프리카산 사자 5·7년생 수·암컷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암컷 2마리가 지난 15일부터 관람객들에게 임시 공개됐다. 태어날 당시 1.2kg이었던 새끼 사자의 몸무게는 100일이 지난 현재 5kg으로 늘어났다.

우치동물원 측은 3개월간 면역력이 약한 새끼호랑이를 보호하기 위해 출산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인공 포육(어미와 새끼를 분리, 사람 손으로 키우는 것) 한 뒤 시민들과 새끼 사자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잠시 공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암컷 두 마리는 현재 '사자 아기 놀이방'이라는 명패가 걸린 독수리 우리 옆 16.5m² 크기의 우리에서 별도로 생활 중이다.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 우치동물원 측은 일반 공개에 앞서 이름도 지어줬다.

국민 여동생 김연아 선수의 '연'자를 딴 '대연', '소연'이다. 사자 새끼들의 이름은 지난 3월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서 최고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한 차지한 김연아 선수처럼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 건강하게 자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우치동물원 최종욱 수의사는 "동물원에서 자란 맹수의 경우 새끼 생존율이 10% 정도로 매우 낮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일어남에 따라 인공 포육을 통해 새끼를 키운 뒤 일반에 공개했다. 이곳에서 1~2년 동안 키운 뒤 어미 사자의 우리로 합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부실사립대 12월 퇴출

7월부터 30여개 대학 경영 실태조사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을 위해 먼저 30여개 대학에 대한 경영 실태조사를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교과부는 24일 대학선진화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재무지표와 교육지표로 구성된 부실대학 판정 기준을 확정했다.

재무지표는 재학생 충원율, 등록금 의존율, 운영수익의 3년 연속 증가 여부 등 5개 세부지표이며 교육지표는 신입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학생 취업률 등 6개 세부지표로 돼 있다.

이 지표를 토대로 전국 293개 대학 및 전문대학의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 결과, 40여 곳이 학생 모집의 어려움 등 때문에 경영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특히 경영난이 심하고 외국인 유학생 부실관리 등 학사운영 상태도 좋지 않은 30여곳을 선별,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집중적인 경영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 결과 독자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학에는 12월까지 '경영부실 대학' 판정을 내리고, 타 대학과의 합병이나 해산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 공시정보 사이트 '대학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사립 대학 중 2008년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이 동시에 70% 이하인 대학은 4곳에 달해, 최소 4개 정도의 대학이 구조 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순천 황전 35도…올 첫 폭염주의보

24일 구례의 낮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치솟는 등 광주·전남지역 대부분이 30도를 웃돌면서 올들어 처음으로 5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곡성군과 구례군, 광양시, 순천시 등 전남지역 4개 시·군에, 오후 5시를 기해 화순군에 폭염주의보를 내렸다.

올 들어 처음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지난해(7월7일)보다 무려 2주가량 앞선 것이라고 기상청은 밝혔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곡성 33.4도 ▲광양, 화순 33.0도 ▲광주 32.6도 ▲나주 32.2도 등이다. 기상대 관측이 아닌 자동 관측소에서의 이날 낮 최고기온은 순천시 황전면이 35.4도를 기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 같은 불볕더위는 장마전선이 북상하는 28일부터 다소 누그러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서남해상 대형 원목 150여개 표류

서해상에 대형 원목이 떠다니고 있어 운항하는 선박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완도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시께 제주 추자도 북서방 52마일 해상을 지나던 캄보디아 화물선 3천450t급 메디니카이호에서 두께 50㎝, 길이 4~5m 크기의 원목 1천600여개가 유실됐다. 메디니카이호는 러시아에서 원목을 적재한 뒤 중국 대련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해경과 해군 등은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1천451개를 바다에서 건져 올렸으나 나머지 원목 150여개는 해류를 타고 서해안 등으로 표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원목이 바다에 떠다니고 있어 야간 운항시 자칫 충돌 위험이 있다"며 "여객선과 화물선 등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